

# 社會科學과 環境

金 光 雄\*

## 目 次

- |            |              |
|------------|--------------|
| 1. 序 言     | 3. 環境의 接近方法  |
| 2. 環境의 概念  | 가. 生態論의 一般原理 |
| 가. 環境의 意味  | 나. 生態論의 接近法  |
| 나. 體制의 意味  | 4. 環境의 課題    |
| 다. 生態論의 意味 |              |

## 1. 序 言

이 글은 社會科學이 認知하는 “環境”을 그 概念, 接近方法, 그리고 課題에 따라 여러 사람의 주장을 빌어 정리해 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밝혀야 할 것은 社會科學의 諸分科를 망라하여 各分科에서 쓰고 있는 環境이라는 의미를 소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社會科學 가운데에서 政治學과 行政學만을 위주로 하여 이 分野에서 論議되고 있는 것만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制約과 더불어 또한 限定되는 것은 이들 分科에서 援用하는 環境이 이들 世界에서 獨自의으로 創出된 概念이 아니라 生物學이나 生理學과 같은 自然科學에서 사용하는 概念을 借用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環境이라는 의미 자체는 두 科學의 세계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

環境이라는 概念에 눈을 돌린 것 부더도 이러한 연유때문에 그 시기가 훨씬 뒤 늦어진다. 주로 世界 第二次 大戰 이후에 學問의 傾向이 多元的 行態的인 定向을 타면서 부더 환경은 社會科學者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政治學이나 行政學에서 하나의 現象을 分析할 때 다분히 一義的이고 斷片的이었다. 歷史主義的인 立場에서 政治現象을 分析할 때 환경이라는 것은 “時代의 背景”이라는 靜態的이고 固定된 常數 이상의 뜻을 지니지 못했다. 組織을 分析對象으로 삼았던 行政學의 古典理論에서도 組織의 內的 要因간의 相互作用에 관심을 쏟아 體制論의 近似值에 접근하였을 뿐 環境의 의미는 아직도 浮刻되지 못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주장되는 統合科學의 맹아가 싹트면서 부더 예컨대 政治構造나 行政組織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助敎授

을 分析하는 입장은 그 內在的 要因의 分析뿐만이 아니라 그 構造나 組織을 둘러 싸고 있는 이른바 環境이라는 의미와 그 기능을 도외시 할 수 없게 되었다.

주로 構造, 機能論이나 體制의 입장에 서는 학자들은 投入과 產出이라는 「파라다임」에 근거하여 현상을 분석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投入은 환경으로 부터 받아들인 무엇, 즉 政治體制의 投入으로서의 要求와 支持 같은 것이 환경에서 始源되었다는 見解를 가지며 그 體制가 만들어 낸 政策과 같은 產物을 環境에 대해 내놓는다고 할때 이 產出 역시 환경과 관련짓는 의미로 이해한다.

政治學의 경우와는 달리 行政學에서는 그 接近方法에서 生態論이라는 어휘가 흔하다. 뒤에서도 言及하겠지만 行政學에서는 組織과 環境간의 交互작용에 관한 관심을 John M. Gaus 이후 부터 갖게되어 研究對象으로서의 行政對象을 보다 多岐하고 깊이 있게 해주었다.

이상과 같은 制約性이나 限界性을 인식하면서 이 글은 환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體制의 의미와 生態에 대한 의미를 다음 章에 소개한다.

나아가 우리는 環境을 어떻게 認識하여 왜 關心을 갖는가, 그래서 어떻게 接近하며 理論 定立을 위해 어떻게 活用하고 있나를 그 다음 章에서 論하려 한다.

끝으로 여러 理論에 기초한 環境이라는 의미가 이 分科에서 現實적으로 어떠한 課題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分析하기 위한 實際문제에 초점을 모아 보았다. 이 部分은 그 應用性이라고 하는 것이 直感이나 상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論議에 제약을 받으나 討論을 통해 補完되기를 바란다.

## 2. 環境의 概念

### 가. 環境의 意味

環境이란 外的 要因으로 有機體의 生命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듬체로 정의하는 것이 生理學의 의미를 풍기는 정의가 된다. 行政學쪽에서는 이렇게 定義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즉 하나의 組織體는 그 存續과 成長을 위해 適應하고 規制하며 調整하게 되는데 이것에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는 外的 條件의 總體를 環境이라고 말할 수 있다. 環境의 의미는 이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表現상의 紐帶가 다를 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위와 같은 環境의 概念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가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類型의 多樣性이다. 環境에는 어떤 類型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實例는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우선 社會科學的 입장과는 달라지지만 人間을 중심으로 한 경우에 그 環境에

는 生物的 環境(biological environment), 物理的 環境(physical environment) 및 文化的 環境(cultural Invironment)이 있다.

이러한 分類는 반드시 客觀的이지 못하다. 많은 生態論者들이 環境의 諸要素를 여러 각도에서 分析하러 하지만 만족스러운 霸道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生物과 無生物의 要素를 포괄하느냐에 따라 生物的 環境과 物理的 環境을 나누어 본다. 산소, 탄소, 기후, 土壤등은 모두 環境요소외의 例다.

위와 같은 세가지 分類의 예에도 文化的 環境에 對稱되는 것으로 概念的 環境(conceptual environment)이라는 것이 있다. 文化的 環境은 옷, 집, 도구처럼 人間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반해 概念的 環境은 人間生活은 人間이 고안해 내는 것에 의해서 支配되는 데 이때의 思考(idea)에 관련되는 것만을 뜻한다.

또 人間의 環境을 認知하느냐에 따라 대개 認識하고 있는 環境을 認知的 環境(perceptual environment)이라고 부르고 「바이러스」균처럼 다른 도구의 도움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것을 操作的 環境(operational environment)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認知的 環境이 의미가 있는 것은 人間이 認知하고 있는 環境과 環境 그 實體와는 반드시 一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動, 植物이 인지하는 숲은 다르다.)

政治體制 또는 行政體制에서 생각하는 環境은 주로 社會·文化的 環境이다.

文化를 環境의 일부로 고려하느냐 안하느냐는 心理學이나 生理學의 입장이 다르지만 적어도 政治나 行政의 下位體制를 위요하고 있는 것이 社會·文化的 요소라고 한다면 이 경우 社會·文化的 요소는 環境의 구실을 한다. 그래서인지 Fred W. Riggs는 環境의 例로 「콤뮈니케이션」의 상상조직을 行政體制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으로 들고있다.<sup>(1)</sup>

한편 순수한 行政的 性格으로 분류해서 쓰는 용어 가운데에 課題的 環境(task environment)과 脈絡的 環境(contextual environment)이 있다.<sup>(2)</sup> 前者는 投入과 產出의 側面에서 모든 組織, 集團 및 組織과 특별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環境을 뜻한다.

반면에 後者는 前者의 環境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 즉 組織, 集團, 그리고 사람들간의 關係를 뜻하는 것으로 組織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移入된 경우가 아닌 것이다.

行政家에게는 항상 組織의 內部世界와 課題的 環境과 脈絡的 環境간에 상호 關係가 관심의 주된 내용이 된다. 다시 말해서 行政家是 組織의 內部的 交互作用에서 비롯되고 문제되는 부서간의 갈등문제, 지위문제, 조직의 침체 문제, 士氣와 能率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이들과 課題的 環境간의 關係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1) Fred W. Riggs,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oston: Houghton Mifflin, 1964, p. 427.

(2) *Appraising Administrativ Capability for Development*, UN publication, New York, 1969, pp. 44-48.

둘째는 境界의 伸縮性이다. 環境과 有機體와의 境界는 어디나 하는문제이다. 환경으로서의 사과를 사람이 먹었을 때 사과는 이미 환경의 요소가 아니라 有機體의 한 要素가 된 것이다. 이처럼 生物的 環境과 有機體의 경계는 애매하지가 않다. 하지만 衣服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의복이 外的 條件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사람이 옷을 입었을 때 그때는 이미 “옷을 입은 인간”으로 認知되며 그 人間의 人格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의복은 有機體의 일부처럼 착각된다. 이처럼 物理的 내지 文化的 環境과 有機體와의 경계는 벌써 애매해진다.

이것이 政治·行政體制와 社會·文化的 環境과의 관계가 될 때 그 경계는 더욱 더 복잡하여 단선적이 못된다. 커뮤니케이션 망상조직을 환경의 例로 들었지만 政治·行政의 體制內에 그러한 機能이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경계란 극히 모호해진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政治, 行政體制는 全體社會體制의 하나의 下位體制로서 그 경계를 획하기에 따라 그 내용적 요소가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가 있다. 議會만을 하나의 體制로 볼 때 政黨이나 利益團體는 政治體制의 하나의 下位的 體制나 要素 이전에 환경적 요소가 되고 마는 것과 같다.

셋째는 主從關係의 轉倒이다. 體制와 環境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위치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이다.

우선 兩者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交互作用을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경우 지금까지 이해되어 온 것은 體制와 환경이 끝없는 신진대사 작용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련을 맺지만 어디까지나 환경이 體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決定論은 반드시 옳지 못하게 되었다. 人間의 지혜와 기술이 개발되면서 부터 사막에는 관계시설이 놓여져 옥토로 이용되고 잔디도 갈 수 있게 되고 풍경을 뒤바꿔 놓았다. 이처럼 人間의 능력이 환경을 하나의 決定論으로 생각하던 觀念을 고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發展論에서 말하는 人間의 自然에의 도전과 극복의 命題인 것이다. 그래서 발전론은 바로 體制의 環境克服 혹은 환경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命題아래에서 논의됨으로써 그 直意가 把握될 수 있는 것이다.

#### 나. 體制의 意味

環境의 의미를 把握하기 위하여 體制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體制가 환경과 관계없이 정립될 수 있는 概念이 아니듯이 環境 역시 體制의 설명없이 이해될 수 없다.

Amitai Etzioni, L. Von Beitalanffy, A.D. Hall, R.E. Fagen같은 학자들은 體制란 要素의 總體로 일정 法則에 따라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고 한다. 달리 표현하면 요소간에 맺고 있는 관계의 묶음이다. 또한 체제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첫째, 體制는 각기 특성을 가진 構成要素와 그들 사이의 相互作用으로 형성된다,

둘째, 體制는 자체 모든 要素를 그 특성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몇 가지만을 抽出해서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저한 상호작용의 특성만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

셋째, 體制는 決定論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要素간의 相互作用이 一般法則을 따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體制分析家들은 事實조사에 치중할 뿐 아니라 行態를 설명하는 어떤 法則을 규명하려 한다.

넷째, 體制는 過程과 結果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要素간의 상호작용을 일정한 시간의 간격에 따라 보면 그것이 과정이 되고 단절된 시간속에서 보면 결과가 된다. 끝으로 體制의 의미속에는 境界라는 概念이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體制가 觀念上 分立되는 것으로 안에는 體制가 밖에는 環境이 있다는 것을 인식케 하는 概念이다. 體制의 속성이 대략 이상과 같으나 體制에는 이 밖에도 均衡(equilibrium 또는 homeostasis), 相互依存性(interdependence), 還流(feedback), 緊張(stress), 投入(input) 및 產出(output)과 같은 뜻이 들어가 있다.

體制에는 開放體制(open system)가 있고 閉鎖體制(closed system)도 있으며 추상적 體制(abstract system)도 있고 具體的 體制(concrete system)도 있다. 人間이라는 有機體는 閉鎖體制요 會員制에 의한 모임을 가질 때 그 組織 역시 閉鎖體制이다. 그런가 하면 大部分의 社會, 文化體制는 開放體制의 性格을 띤다. 具體的 體制는 政治體制로서의 政黨같은 것이다. 抽象的 體制의 例로는 公務員 不正과 같은 것으로 罪意識의 鈍感化, 報酬와 生活費의 隔差 歪曲된 公務員觀 등으로 얽혀 있는 상태를 뜻한다.

환경과의 관계라는 側面에서 이들 體制의 類型을 把握한다면 이들 사이에는 환경과의 관계가 분명하여 그간의 新陳代謝나 流入出이 용이하게 把握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 다. 生態論의 意味

第3章의 接近方法에서 주로 論議되었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그 一般的 概念만을 밝힌다.

生態(ecology)란 有機體와 환경간의 相互作用을 뜻한다. 또는 體制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產出 또는 諸 要素가 生態의 內容이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有機體나 體制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存續하고 成長하는 문제가 설명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社會科學에서는 政治, 行政, 現象 分析이나 組織의 發展을 설명하는 方法論的 가치를 지닌다.

흔히 生態論은 人間的生態(human ecology)와 文化的 生態(cultural ecology)로 大別된다. 우선 人間的 生態의 특징은 첫째 人口와 환경의 交互作用에 의해서 생기는데 여기서 환경이란 外部的인 潛在的 혹은 現實的으로 어떤 現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固定된 내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對象에 따라 달리 定義되는 時空의 概念으로 一般的으로 이해되는 환경의 概念이다. 둘째, 人間的 生態는 당연히 人口面에 중점을 둔다. 셋째 人口와 환경의 交互작

용에 의해서 산출되는 조직은 形態學的이며 構造的 分析의 對象으로서 다소 完全하고 스스로 持續的인 것으로 취급된다. 넷째, 均衡을 前提로 삼는다. 組織이 完全해 감에 따라 變化를 조정할 수 있는 能力과 그 形態를 유지할 수 있는 能力이 생기는데, 그러한 능력이 생기거나 혹은 생기지 않더라도 體制는 緊張→歪力→葛藤→變化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생동하는 가운데 安定性向을 띄고 均衡을 유지하려 한다.

文化的 生態는 社會가 환경에 適應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그 原理面에서 人間的 生態論과 차이가 없다. 文化的 生態는 또는 生物學的 生態와 달라 競爭關係뿐만이 아니라 協助關係를 전제로 하면서 技術, 欲求, 社會構造 環境의 性格에 의존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文化的 生態에서 社會가 환경에 適應해 나가는 과정에 의해서 經驗하는 文化的 實體들, 즉 技術과 言論 같은 文化的 要素 그 自體가 상황에 따라 다른 反應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위의 두 區分은 그 性格에 따른 生態의 類型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社會科學의 立場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것은 文化的 生態임에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은 文化的 生態 그 自體의 性格이 個別的이 아닌 集合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3. 環境의 接近方法

#### 가. 生態論의 一般原理

環境의 研究가 社會科學에서 意味를 지니는 것은 “生態論的 接近方法”이라는 이름아래 二次大戰以後 부터 論議되어 오던 方法論的 比重때문이다. 이러한 比重은 또한 政治·行政現象의 分析視角을 바꿔놓았고 그 內容의 質的變化를 재촉했다.

당초 行政學에서는 組織 그 自體의 움직임이 組織內的인 요인에 의해서만 규제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動態的 體制(主로 開放體制)로서의 組織이 文化·環境과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恒時 交互作用을 한다는 사실을 否認할 수 없는 限 組織에 대한 分析에는 組織外的인 要因, 즉 環境的 要因에 대한 分析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 行政學에서는 John M. Gaus가 이미 生態論의 重要性을 主張한 바 있다.<sup>(3)</sup>

體制가 環境과의 關係를 증시하는 이러한 이유를 좀 더 부연하면, 體制는 維持, 適應, 統合 및 目標達成의 속성 내지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모두는 體制가 維持存續되고 發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體制는 環境에 適應하고 스스로를 規制하며 스스로를 調整

(3) John M. Gaus, *Reflec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Al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47), pp. 1-19.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體制와 環境은 이와 같이 相互依存의 原理에 입각하고 있으며 共生의 연합(symbiotic union)으로 效率性和 創造性を 높인다. 이 이외에도 體制가 環境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機能別 分化의 原理에 의하여 主要機能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各 機能單位는 環境과 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各 單位의 機能에 필수적인 條件을 결정하고 규제한다. 이를 支配의 原理라고 한다. 이러한 體制와 環境과의 관계는 競爭關係로도 나타나고 協力關係로도 나타난다. 文化的 生態는 協力的 關係를 보다 중시한다는 사실을 이미 지적했다. 協力關係에 있어서 環境은 組織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며 組織 또한 環境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協力關係에는 影響力의 行使方向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지금까지 再者의 관계는 다분히 環境이 體制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體制의 입장에서는 受動的이라고 이해되었다. 再者가 交互作用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一方的이었다. 環境은 주어지는 것으로 그 改造는 體制의 能力밖이라고 흔히 생각했다.

그러나 人間이 自然環境을 바꾸듯이 體制는 環境에 의하여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것은 나아가 發展의 基本哲學으로 굳어졌다. 이는 環境에 의하여 生物이 받고, 반대로 生物에 의하여 環境이 받는 規制原理로도 설명될 수 있다. 前者는 예들어 生物이 하루에 받는 日光의 照射時間에 따라서 그 生物의 성장과 기능면에 미치는 영향의 비율(photo periodism)과 같은 原理이며 後者는 蛋白固定微生物의 役割같은 것이다.<sup>(4)</sup>

위의 몇가지 一般原理를 고려할 때 환경에 연관된 接近方法은 多元研究方法(multidisciplinary approach)이어야 하며 生態論的 接近方法은 이러한 사정을 잘 대신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生態에는 有機體와 環境간의 個別的 交互作用을 뜻하는 獨立生態(autecology)와 有機體와 環境간의 集合의 交互作用을 뜻하는 集合生態(synecology)가 있는데 社會科學研究는 그 現象의 屬性이 多元的이며 集團主義的인 것을 특색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集合生態의 개념이 보다 의의가 있으리라 믿는다.

#### 나. 生態論的 接近法

社會科學에서 생각하는 生態論的 接近法은 크게 나누어 네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生態 그 자체를 전혀 개의치 않는 입장이고, 둘째는 환경을 매개변수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며 셋째는 환경이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넷째는 體制가 환경에 영향을

(4) 鄭熙燮, 資源·環境·人口(서울:實學社, 1972), pp.197-198

미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體制와 環境간의 관계를 보는 研究方法으로 生態論的 接近方法을 몇몇 學者의 主張에 따라 소개한다.

일찍이 John M. Gaus교수는 環境의 變化가 새로운 政策과 行政을 유도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Gaus교수가 들고 있는 環境의 主要인은 흔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1) 사람(people) 人口·연령·장소에 의한 分布가 政策과 行政에 영향을 준다. (2) 場所(place)—장소의 資源과 그 利用이 영향을 준다. (3) 物理的 技術(physical technology)—機械文明의 발달이 變化의 요인이 된다. (4) 社會的 技術(social technology)—社會制度가 영향을 미친다. (5) 災殃(catastrophe)—天災地變같은 것이 政策과 行政을 변화시킨다. (6) 思潮와 欲望(wishes and ideas)—國民이 요구하는 바 대로 政策과 行政은 이를 따라야 한다. (7) 個性(personality)—社會的·物理的 技術이나 思潮와 欲望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指導人物의 個性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環境的 要因의 영향력에 대한 探究는 그후 社會變動研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최근 Richard Lapiere가 지적하고 있는 社會變化의 두가지 範疇, 즉 量的인 것과 質的인 것이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사항들은 바로 環境要素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量的인 것으로 物理的·生物的·人口學的 變化를 들고 있으며 質的인 것으로 技術, 理念, 組織을 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sup>(6)</sup>

後進國 行政 研究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그래도 Fred W. Riggs교수의 生態論的 接近方法이다. Riggs교수는 轉移社會(transitional society)에서 政治·行政制度를 수립하는데는 傳統的인 諸構造의 壓力, 즉 家族, 宗教, 및 傳來的 慣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시하고 이러한 非行政的 要因을 行政的인 것에 관련시켜 보는 生態論的 方法을 강조하고 있다.

行政과 그 社會的 環境간의 관계에 대한 理論을 體系적으로 定立한 Riggs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後進國比較行政研究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러나 그의 理論은 本質적으로 均衡論的·靜態論的 性格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대해 Edgar L. Shor는 文化的 環境의 테두리에 속해있는 그의 生態論的 模型이 行政上의 移植과 借用에 있어서 文化的 異質性, 前提條件 및 그 逆機能的 效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傳統的 構造의 영향과 경직성을 과대평가하고 近代化 과정 자체의 動態的이고도 多樣한 性格을 看過했다고 評하면서, 生態論的 方法論은 모름지기 그 속에 “現存變動過程속에 內包된 動態的이고도 微妙한 樣相에 대한 보다 經驗的인 映像을 形體化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sup>

(5) Gaus 上揭書, p. 8.

(6) Richard T. Lapiere, *Social Change* (New York: McGraw-Hill, 1965), chs. 7, 8, 9, and 10.

(7) Edgar L. Shor, “Comparative Administration Static versus Dynamic Reform,” in *Public*



그러나 Riggs는 그후 靜態的 生態論에서 벗어나 보다 動態的 局面에 관심을 보이면서 生態論的 接近方法을 보다 具體的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構造・機能論과 體制論에 대한 비판에서 構造的 要素에 대한 輕視, 機能에 대한 歪曲된 理解, 그리고 體制를 단순히 部分 體制(partial system)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에 대해 경고하면서 全體體制(whole system)에 대한 理解를 促求한다. 이 全體體制에서는 體制와 體制와의 關係를 같은 수준 혹은 다른 수준에서 이해하는 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서 前者를 脈絡(context)이라는 용어를 붙여 脈絡的 分析(contextual analysis)이라고 하여 權力 關係(power relation)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 後者를 背景(setting)이라는 용어를 써서 生態的 分析(ecological analysis)이라고 하여 物理的, 文化的, 人間的 環境을 포함시키며 發展關係(development relation)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8)

解放 以後 韓國에서의 政治・行政環境과 行政發展과의 相互作用을 관찰한 李漢彬교수의 「社會變動과 行政」은 生態論的 接近法을 구사한 代表的인 것으로 理論面에서 Gaus의 입장을 따르고 Riggs의 靜態性을 비판하면서 Shor의 입장을 감안하고 있다. 發展型 時觀模型에 따라 韓國의 政治・行政을 分析하는 가운데 李교수가 의존한 環境變數는 (1) 地理的・人口論的 局面과 (2) 思想的・制度的 變動을 포함하는 社會文化的 局面으로 生態系(ecosystem)의 總體를 고려하고 있는 듯 하다. (9)

朴東緒교수는 그의 著書, 韓國行政論 제1편, 제4장에서 行政理論의 發達을 설명하는 가운데 行政變數로서의 生態를 다음 圖表에서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10)

行政理論의 變遷

時期	1880—1920	1930—1950	1960
內容			
1. 行政과 政治	行政의 獨立. 2元論	共擔. 1元論 2元論(行態)	代 領 行 導(?)
2. 科學과 技術	科 學 觀	技術觀 科學觀(行態比較)	技 術 觀
3. 行政 理念	能 率 性	民 主 性	効 果 性
4. 行政 變數	構 造	心理 人間(社會), 生 態	人間(發展人)

참고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行政變數로서의 生態는 50년대까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Administration Review Vol. XXI, No. 3(September, 1962), pp.158-164. 이에 대하여는 李漢彬교수의 社會變動과 行政. (서울, 博英社, 1968), p.72를 참조.

(8) Fred W. Riggs, "System Theory: Structural Analysis, in Michael Haas and Henry S. Kariel (eds.), Approaches to the Study of Political Science (Scranton, Penn.: Chandler Publishing Co., 1970), pp.194-238

(9) 李漢彬, 上揭書, 3장과 4장 참조.

(10) 朴東緒, 韓國行政論(서울, 法文社, 1972), p.78

60년대 이후부터는 行政學의 發展行政偏向에 따라 發展人으로서의 人間이 變數로서 두드러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章 末尾에서도 소개하겠지만 生態論的 接近方法의 變貌를 설명하는 것이다.

金圭定교수는 行政體制에 대한 環境을 社會的·經濟的·政治的 環境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行政을 제약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1) 地理, 歷史 (2) 社會構造 (3) 經濟體制 (4) 政治體制 (5) 이데올로기 (6) 科學技術등이라고 한다.<sup>(11)</sup>

끝으로 政治學者가운데 Gabriel A. Almond교수는 政治發展 理論으로서의 體制·機能理論(system-functional theory)이 指導性과 問題解決의 行態를 도의시 한다고 비판하면서 指導者가 代案을 선택하고 問題를 해결하는 狀況과 過程에 대한 보다 깊은 認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體制·機能理論의 限界를 제시하고 環境動態의 性格을 강조하는 듯 하다.<sup>(12)</sup> 한편 國際關係를 連繫틀(linkage framework)에 따라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는 James N. Rosenau교수는 政體(policy)와 環境간의 關係를 설명하면서 假說을 定立하고 있다. Rosenau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環境은 (1) 隣接環境(contiguous environment), (2) 地域環境(regional environment), (3) 冷戰環境(cold war environment), (4) 人種環境(racial environment), (5) 資源環境(resource environment), 및 (6) 組織的 環境(organizational environment) 등이다.<sup>(13)</sup> 구지 生態論的 接近法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國際關係의 性格上 고려되어야 할 環境의 要素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 性格 또한 多樣하고 광범위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政治·行政學者들이 생각하고 있는 體制와 環境간의 關係연구로서의 生態論的 接近法을 一瞥해 보았다. 이 接近法은 社會現象을 보다 깊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준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看過해서는 안되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이 接近法은 우선은 환경이 體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一方的의 影響력을 생각하였으며 靜態性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均衡主義에 빠져있다는 뜻과 같다. 그러나 體制와 環境간의 影響關係가 雙方的인 것으로 바뀌었음은 물론 靜態·均衡에서 벗어나 動態·不均衡의인 眼目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은 生態論的 接近法의 格을 높이는데

(11) 金圭定, 新行政學原論(서울, 法文社, 1973), pp.101-103. 특히 그는 環境要因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社會的 環境으로 ① 過渡社會의 性格 ② 儒敎的·家父長的·權威主義的 傳統과 思考 ③ 歸屬的·自己指向的·多分派主義的 社會體制 ④ 급격한 都市化 현상 ⑤ 新舊思潮의 갈등, 民主主義의 非土着化 ⑥ 새로운 科學·技術의 도입등을 들고, 經濟的 環境으로 ① 混合經濟體制 ② 빈약한 民族資本의 축적—外國借款도입 ③ 官僚資本主義化 ④ 市場의 自動調節機能 喪失 ⑤ 政府主導型 經濟構造로 不實企業 속출등을 들며 政治的 環境으로 ① 近代의 資本主義의 擔當者로서의 市民階級의 不在 ② 中央集權的·絕對制의 統治構造의 지속 ③ 行政權力의 優위 ④ 民主主義의 이념에 입각한 政治的 社會化의 未熟 ⑤ 參與的 政治文化의 未熟을 들고 있다.

(12) Gabriel A. Almond, *Political Development: Essays in Heuristic Theory* (Boston: Little, Brown & Co., 1970), p. 283.

(13)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Free Press, 1971), pp. 324-330.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環境과 체제가 主從의 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生態論이 풍기는 印象이기 때문에 社會科學의 研究方法는 生態論的 接近法에서 體制論的 接近法으로 자리바꿈을 하게 되었다.

體制論的 接近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피하나 이 자세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최근에 이르러 政策分析의 接近方法이 주장되기는 한다. 어쨌든 體制論的 接近方法은 오늘에 이르러 社會現象研究 도구로 그 大宗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비중이 보다 커진 것은 體制의 變動說明不可能性이 해소되고 體制理論은 動態的이며 發展性에 대한 說明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sup>(14)</sup>

그러므로 生態論的 接近法보다는 體制論的 接近法이 보다 더 浮刻되어 認證되고 있음을 밝히며, 여기서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體制論的 接近法에도 環境을 不可分의 要素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 4. 環境의 課題

지금까지 社會科學에서 認知하는 環境의 개념은 그 源泉이 生物系에서 비롯되었지만, 社會科學은 그 나름대로의 현상에 맞게 환경의 뜻을 여과 시켰다.

그래서 社會現象에 맞는 環境은 우선은 文化的 環境이며, 또 이에 對稱되는 概念的 環境 역시 같은 비중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認知的 環境이나 操作的 環境은 그간에 차이없이 意味를 부여받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政治·行政이라는 複合現象에 대하여는 物理的·生物的 環境의 의미가 비교적 희박하다는 점이다.

方法論的 側面에 있어서도 社會科學을 위하여는 協同研究 내지 多元研究方法이 필요불가결하며 그것이 生態論的 接近方法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고 그 기초는 集合生態(synecology)라는 것을 이미 서술했다. 그리고 生態論的 接近法은 體制分析의 方法論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제 개념과 方法論의 차원을 넘어 전체사회체제를 구상해 볼 때 어느 分科의 學者라도 政治·行政體制와 文化體制가 最優位에 있음을 否定하지 못한다. 그 다음으로 經濟體制(economic system), 教育體制(educational system), 및 科學·技術體制(science-technological system)가 있고, 그 다음에 物理·環境的 體制(physico-environmental system)와 人口論的 體制(demographic system)가 있다.

이들 諸體制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운데 政策이라는 產出物이 나오고 人間은 財貨와

(14) 여기에 관하여는 筆者의 “行政의 方法論”, 朴東緒編 發展行政論(서울, 法文社, 1973), pp. 134-169를 참조하기 바란다.

서비스를 받아 幸福을 추구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가 自明하다. 과연 物理・環境의 體制가 政治・行政・文化體制의 영향권내에 있는 것이라면 환경의 計劃家들은 政治・行政・文化에 대한 깊은 인식과 지식을 우선 가져야 할 것이다.

現代社會가 움직이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국면을 Michael Crozi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發展行政의 計劃家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體制간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sup>(15)</sup> 즉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1) 農業 (2) 企業 (3) 階級構造 (4) 커뮤니케이션 組織 (5) 經濟制度和 政治教育 (6) 勞動 (7) 國家資源 (8) 人口 (9) 宗教 (10) 科學 (11) 社會的 移動性 (12) 技術 (13) 都市의 特性 (14) 價値問題등이다.

實로 社會科學쪽에서 생각하는 環境的 要素는 아주 多樣하며, 그 모두가 다 變化의 對象이요, 變更의 道具로 간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政治・行政의 메카니즘이 그 영향흐름의 主源이라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政治・行政體制는 앞서도 지적했지만 이와 같이 環境을 調節하고(controlling), 制約하며(limiting), 計劃한다.(planning) 그것은 立法措置나 行政이나 그 執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와 같이 環境을 보존할 것인가, 혹은 항만의 船渠築造처럼 環境을 바꾸어 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집행이 한 없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政治・行政體制의 能力이 새로이 발생하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構造가 多元的이면서도 統合的이냐의 문제와 결정된 결과가 과연 人間의 幸福을 위해서 뜻이 있는 것인가이다. 오늘날 많은 政府의 組織이 環境問題를 처리함에 있어서 局地主義(parochialism)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政府組織 그 자체가 有機的・體系적으로 綜合化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政府의 政策決定이 國民大衆의 幸福과 거리가 멀 수도 있는 例로는 宇宙産業의 發達을 들 수 있다. 물론 短見的 評價일지는 모르나 人間이 달에 착륙하고 우주유영을 한다는 것은 人間의 知慧와 技術, 그리고 政府의 支援이 環境의 굴레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立證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龐大한 豫算과 노력을 동원해서 얻은 결과가 물이나 공기오염과 인구폭발같은 보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바로 環境에 對應하는 政策世界의 課題가 있다. 政治・行政體制의 政策이 環境의 세계를 操作하여 人間의 最大幸福을 具現해야 한다.

이 모든 過程을 유도하기 위하여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環境을 흡수하여 人間의 價値와

(15) Michel Crozier, "Attitudes and Beliefs on National Planning," *Action under Planning* (New York: McGraw-Hill, 1967).

結付시키려는 것을 政治行政이 담당한다. Walter Anderson도 지적하듯이 政治란 지금까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a matter of who gets what, when, and how)로서 財貨와 서비스가 環境的 眞空속에서 창조되고 교환된다고 믿었지만, 오늘날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技術만 선용한다면 政治란 人間이 自然環境을 조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決定을 내리는 것이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16)</sup>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金·原油·우라늄·그리고 어느 社會가 필요로 할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體制가 環境的 要素의 제약을 받지만 필요에 따라, 그리고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體制는 환경을 조작할 수 있다. 政治·行政體制는 다른 下位體制와 관련해서 보았을 때 그 事情이 보다 질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한다.

< 討 論 >

司會：또하나의 새로운 問題꺼리가 提起되는것 같습니다. 環境研究에 있어서 環境에 對한 積極的인 統制, 計劃問題가 또 하나 環境研究의 關心事로서 등장되는것 같습니다. 午前과 같은 順序로 우선 여기 나와 계신 세분의 comment를 간략히 들기로 하겠습니다.

姜信澤：事實 政治學이나 行政學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立場에서 特別히 環境이라는 것에 對해서 큰 關心을 가져 왔던가에 對해서는 疑問입니다. 오늘날 環境問題가 많이 提起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環境이라는 問題를 提起하였읍니다만 政治學에 限定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政治學에 있어서 가장 큰 關心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아 왔던것은 支配者和 被支配者와의 關係였읍니다. 따라서 한쪽에서는 支配者의 傾向을 어떻게 設定할것인가 하는 것이 主要 關心事였고 또 한쪽으로는 이 被支配의 對象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 主要 關心事였읍니다. 나아가서 이 兩者間의 關係를 어떻게 設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바로 우리들의 主要 關心事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오늘날 流行語에 따라서 環境이라는 말로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問題는 나중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午前中에 發表하신 가운데 主體와 客體問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것이나는것이 提起되었는데, 政治, 行政學에 있어서도 제일 처음 提起되어야할 問題는 도대체 政治學이나 行政學에서 얘기하고 있는 主體의 性格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하는 問題가 되겠습니다. 金光雄教授 發表에서 主로 強調하고 계신것은 主體의 性格을 集團的인 政治體制 立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強調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政治學이나 行政學에서 반드시 集團으로서의 政治體制만을 主體로서 삼고 있는것이 아니라 政治學이나 行政

(16) Walter Anderson(ed). *Politics and Environment* (Pacific Palisades, Calif.: Good year Publishing Co., 1970), pp.1-9.

學에서 主體로서 생각하고 있는것은 個人的인 側面, leadership의 問題도 또한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政治學이나 行政學에서 과연 主體가 무엇이나 하는것 自體도 事實 막연한 것입니다.

個人으로서 主體와 集團으로서 主體, 이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主體를 個人으로 생각하는나 集團으로 생각하는나의 如何에 따라서 나중에 環境問題가 달라질 것입니다. 主體의 性格이 무엇이던간에 主要한 關心事라는것은 支配와 被支配의 問題였었고 여기서 더 直接的으로 關心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主體가 目的을 設定하고 追求하며 實現할 것인가 하는 것이 政治學이나 行政學에 있어서 主要한 關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目的을 設定하고 實現하는 것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으로서 環境을 定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그렇다면 目的을 設定하고 追求하고 實現하는 이러한 直接的인 對象을 만약 우리가 目標라고 定義한다면, 目標라고 하는 것은 어떤 主體가 未來의 一定한 時點에 있어서 實現되기를 願하는 事物의 狀態라고 한다면 이러한 目標에 보다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것이 金光雄教授께서 發表하신것 중에 말하는 소위 課題環境(tash environment), 제 나름대로 번역한다면 業務環境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課題環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또 政治學 나름대로, 소위 體制論에서 이야기하는 投入에 影響을 미치는 어떠한 壓力團體라던지 소위 投入 過程에 影響을 미치는 여러가지 政治過程上에서 나타나는 集團이나 個人的인 要求들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課題環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되지만 一般環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하고 있는 一般環境이란 오늘 얘기하고 있는 主題와 關聯되는 소위 環境과의 어느程度 關聯性이 있는 問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政治와 行政學에 있어서 一般環境 自體라는 것은 제 個人 解釋으로서는 別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世相에 存在하는 森羅萬象이 모두 環境이기 때문에 이것이 政治體制나 行政體制에 어떻게 問題로서 提起될 수 있는나 하는 것은 이것이 政治體制 乃至 行政體制의 目的 設定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나 하는 限度內에서만 環境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또한 一般環境에 關聯되는 對象中에서 個人中心으로 이야기 하는나 集團中心으로 이야기 하는나에 따라 環境의 性格이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生物學的인 物理學的인 環境을 말씀하시는데 個人中心으로 보았을때 個人的인 生物學的인 要求와 慾求를 充足시키기 爲한 環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政治過程을 거쳐서 政治體制나 行政體制에 投入될때 그것은 政治 乃至 行政의 環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集團中心으로 보았을때도 이러한 環境이 政治體制에 投入될 수 있지만 보다 여기서 큰 關心이 되는 것은 이러한 環境이 政治體制에 어떠한 要求를 보내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社會生活에서 惹起되고 있는 여러가지 issue들이 集團中心으로 보았을때 政治體制나 行

政體制에 對한 環境으로서 우리가 認知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環境의 認知가 歷史적으로 보았을때 어떠한 過程을 거쳐 왔는나 하는 것이 보통 社會學이나 人類學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人間生活이 單純하였을 경우에는 單純히 個人的인 生物學的 要求를 充足시켜 주기 爲한 環境이 存在하였을 것이고, 오늘날 社會가 分化되고 專門化 됨으로서 集團生活이 가져오는 問題點이 提起되었을때 이것은 政治學이나 政治體制에 가져오는 또 다른 側面的 環境이 되는 것이고 이 環境이 集團生活에 어떤 危脅을 가져올때 그것이 環境으로서 認知할 수 있는 問題가 된다. 따라서 過去의 연기가 公害가 되지 않았지만, 即 政治體制나 行政體制的 環境이 될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公害라는 立場에서 即 政治體制 乃至 行政體制的 環境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어떤 對象 自體가 環境이 되는 것이 아니라 政治學이나 行政學의 立場에서 보았을때 아까 序說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目標設定, 이것의 追求 乃至 實現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相互作用을 하는나에 따라서 環境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金光雄 教授께서 여러가지 生態論의 接近方法과 關聯시켜 여러가지 環境의 概念, 接近方法, 等を 말씀하셨는데 저의 個人的인 생각으로는 政治學이나 行政學에 있어서 環境이라는 客體 그 自體는 事實上 存在하기 어렵고 또 그것이 큰 關心事는 아니고 이것이 政治體制에 投入 될 수 있는나 하는 소위 mechanism이나 政治過程 自體가 事實 政治學이나 行政學에서 큰 關心事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崔 明: 環境이라는 概念 自體가 워낙 廣範圍하고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의 「트렁크」 같이 생긴것 같습니다. 무엇이던지 거기에다가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環境이란 概念이 우선 分明히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分明히 되지 않아서 概念上的 混亂이 있는것 같습니다. 姜信澤 教授께서 相當히 一般的인 言及을 하여 주셨는데 政治學을 하는 사람으로서 公감을 가졌는데, 오히려 金光雄 教授의 集團의 環境의 二元論보다 相當히 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姜信澤 教授께서 相當히 一般的인 「코멘트」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具體的으로 이 論文이 가지는 問題點을 몇개 指摘하기로 하겠습니다.

過去의 生態論의 立場이 相當히 決定論의 이었으며, 主體가 客體 即 環境을 利用하고 또 조작하고 있는 能力이 없기 때문에 이런것을 說明하려면 體系論의 立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아침 session에서도 體系論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systems theory 自體도 하나의 어떤 均衡理論이고 homeostasistic 概念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systems theory 가지고도 發展이라던지 成長이란 것을 說明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골드 버그氏가 이야기 한거와 마찬가지로 人間이 어떤 目的을 가지고 스스로 自己를 統制하고 또 調整을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cybernetics 理論을 여기에 應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cybernetics 理論 自體도 本來는 工學

系統에서 發達된 것으로 이것을 人間社會에 適用시켜서 實際로 조작하기가 어려운 方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具體的으로 cybernetics 理論을 이러한 問題에 導入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한 成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理論的으로는 그러한 努力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金光雄 教授 論文에서 잘 理解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전에도 發表하신 바와 같이 system과 system이 같은 水準에 있을 때는 權力 關係이고 또 다른 水準에 있을 때는 生態的인 關係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지 理解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政治體系, 文化體系를 이야기 하면서 政治體系와 文化體系가 上位體系이고 나머지 體系를 下位體系라 하셨는데 오히려 體系를 이야기 할 때는 탈코트 파—슨의 social system을 가장 inclusive한 system으로 보고 政治體系나 經濟體系는 그것의 下位體系를 보는 것이 오히려 明白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環境의 概念이 概念的이고 方法論的인 향기가 많이 풍기는 것이기 때문에 實際로 政治學의 理論的인 次元에서 環境을 論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環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公害의 對象이 되는 것임으로 政治學에 있어서는 姜信澤 教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政策決定 여기에 더 重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具體的으로 어떠한 狀況이 생겼을 때 社會科學者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좋은 政策을 만들고 이것을 採擇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安秉永: 金光雄 教授任의 發表에서 보면 system과 環境과의 關係, 境界 等等에 對해서 相當히 자세히 말씀 하셨고 環境의 類型, 接近法에 對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論理的인 思考의 方向으로 이야기 하면 體系 自體의 概念, 基本的인 構成要素에서 始作하여 境界가 定해지고 그 다음에 環境이 무엇인가, 어떠한 環境이 있는가와 같은 方式으로 이야기가 進行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와같은 것이 事實上 別로 論議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姜信澤 教授께서 體系 自體 問題에 對해서 조금 擴散하여 그 方向을 찾은것 같습니다. 우리가 用語를 使用하면서도 걱정스럽고 自身이 없는 것은 體系의 內容입니다. 이것을 分明히 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事實上 再者間的 interaction 問題에 對해서 이야기가 항상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 같아서는 體系概念, 基本單位, 構成要素 等に 關해서 이야기가 조금 되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느껴지는 것은 體系와 環境間的 接觸關係에 強點을 두고 이야기 해야 되겠다는 金教授의 見解에 對해서 共感을 表하는 바입니다. 人間과 環境間的 關係가 아닌 問題에 強點을 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社會科學의 對象이 어쩔 수 없이 人間과 人間間的 相互作用일 수 밖에 없고 行政體系를 行政組織으로 받아 드릴때도 그것이 構造的인 行態的인 여러가지 側面으로 보더라도 事實上 行動力은 人間일 수



밖에 없고 個體이던 集團이던 다시 人間의 問題로 환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도 人間의 어떠한 斷層, 政治體系면, 政治體系에 包括이 되고 그 餘他の部分이 環境에 包含되느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도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컨대 政治體系에 關한 基本的인 單位를 政治行動, 政治役割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였다면 非政治的 役割, 行動은 全部 통털어서 環境으로 包含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政治的이라는 接頭語가 붙었어 說明이 될 수 있는 役割, 行動 以外的 것은 모두 環境이라고 하면 形式論理上으로는 쉬운 이야기 입니다. 예컨대 政治意識, 政治文化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政治的이라 하는 接頭語는 앞에 붙었음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環境의인 要因으로 政治體系에 作用한다고 그 意味를 받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에 對해서 저 自身 自身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여 보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桂七 : 지금 體系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system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organisation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institution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分明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認識하는 것은 조금전에 體系하고 環境에 對한 것을 dichotomy하게 자꾸 말씀 하셨는데 우리 立場에서 보면 system이라는 말을 使用하였을 때는 主體하고 環境을 包含시켜 보아야 하는 立場이며 또한 organisation 이라면 主體의 對象으로서 環境을 보는 立場이며, institution 이라 하던 그러한 system 에서 process, 人爲的이던, 自然的이던,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system, org., institution,에 對한 問題에 對한 coherent 한 關係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問題는 環境論的인 接近, 體系論的인 接近에 對한 問題인데 이와같은 問題에 있어서도, 植物集團을 相對로 하더라도 오랜 歷史를 밝아서 問題가 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내가 요즘 認識한 느낌은 植物의 階層이던 혹은 정집단, 이러한 것이 distribution하고 abandons에 影響을 주는 要因을 우리가 究明하고 그 要因들 사이에 相互作用을 알아내는 것 입니다. 이와같은 立場에서 볼때 環境論的의다, 體系論的이라 하는 것은 別로 問題가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體系論的인 接近을 하는것 같은데 그 體系를 통해서 우리가 環境을 아는 것이지 그 體系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環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體系論的인 接近을 自然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植物集團으로 생각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system, cybernetics란 말은 하나의 接近方法으로서 必要할 것 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 하나의 部分的인 現象에 對해서 우리가 無視할 수 없을 것 입니다.

崔基哲 : 저는 生物 生態學을 專攻하는 사람으로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生物學하는 사람들이 다른 先生任들이 말씀하신 것을 生態學을 發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主體意識에 對한 生態學의 立場이 相當히 바뀌어진 것에 對해 고맙게 생각합니다.